

동시대 광주·인도네시아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보다



컬렉티브오피스는 아트자카르타, 인도아트나우와 함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12월 14일까지 광주출신 작가들 전시를 진행중이다. <컬렉티브오피스 제공>

전시기획사 컬렉티브오피스 주관 12월14일까지 인도네시아서 전시 족자카르타 현지예술가들과 교류 김자이·유지원·정정하 등 8명 참여

동시대 광주 작가들과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예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어 화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공공기금 없이 민간기업 등 후원과 펀딩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기획사 컬렉티브오피스는 아트자카르타, 인도아트나우와 함께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전을 족자카르타 잇츠레디스페이스에서 진행 중이다. 전시 제목은 영국 미술비평가이자 사회비평가인 존 버거의 저서와 동일하다. 시간과 경계를 떠나 동시대 작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나누자는 취지를 담았다.

지난 3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월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아트자카르타, 족자카르타비엔날레 기념으로 초대됐으며, 전시가 열리는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르르사원 등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참여 작가는 김자이, 유지원, 이세현, 이인성, 임용현, 정승원, 정정하, 하루.k 등 모두 8명이며 회화, 사진, 설치, 영상, 판화 등 다양한 장르와 컨셉이 특징이다. 작가들은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족자카르타에서 레지던시를 하며 현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작품활동을 해왔다.

이번 전시는 컬렉티브오피스가 아트자카르타 & 인도아트나우의 협업으로 시작했으며, 기획은 컬렉티브오피스와 인도네시아 잇츠레디스페이스가 맡았다. 특히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자 후원자인 아트자카르타 디렉터 톰 탄디오는 광주 작가들과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공통점과 차별성에 주목했다는 후문이다.

큐레이터를 맡은 이은하 컬렉티브오피스 대표는 통화에서 "이번 전시는 광주지역 작가들의 국제 교류의 장을 넓히고 추후 국제 레지던시 및 전시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세계미술시장의 중요한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국가 미술계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 작가들의 예술적 실천과 작가적인 고민, 소통의 열망을 인도네시아에 소개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전시의 포스터는 잇츠레디스페이스의 스타작가인 락사마나 료의 디자인으로 제작돼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전시에 참여한 8명의 작가들은 모두 1980년대 광주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시 시대적인 아픔과 변화, 발전을 느끼고 경험했던 작가들로 나름의 예술적 지향이 뚜렷하다.

김자이 작가는 다양한 레지던시 등을 매개로 소통과 휴식을 탐구하는 작품활동을 해왔다. 유지원 작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에 드리워진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등을 이야기한다.

이세현 작가는 근현대사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개막식 장면.

중심을 토대로 역사와 현재에 대해 질문하며 이인성 작가는 동시대 개인의 삶을, 작가로서 충돌하고 진화하는 자아를 은유적으로 구현한다.

미디어아티스트 임용현은 초미디어 현실을 풍자적이고 지적인 방식으로 비판하며, 정승원 작가는 예술이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힘을 인도하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지향한다.

정정하 작가는 값비싼 재료가 아닌 것을 이용해 고급 예술의 경계와 본질을 물으며 하루.K는 물질과 산수로 상징되는 정신의 문제를 유희적 시각으로 풀어낸다.

한편 이 컬렉티브오피스 대표는 "행사가 민간기업 후원으로 진행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레지던시를 계기로 2024년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인도네시아 파빌리온 개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유스퀘어문화관에서 피들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모습. <피들스트링 오케스트라 제공>

12월 시작은 바흐 음악으로

피들스트링 오케스트라 음악회, 12월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바로크 시대로 떠나는 음악 여행.

피들스트링 오케스트라(단장 김해경·피들스트링)가 14번째 음악회 'I'll be Bach for Christmas'를 12월 2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피들스트링은 2008년 전남대 평생교육원 바이올린 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2010년 정식 창단한 오케스트라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바흐의 곡들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선보인다.

'위더 뮤직', '브랜든버그 협주곡 3, 5번', '바이올린 소나타'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믿음', 'Con te partiro', '그린슬리브'도 해설을 곁들여 들려준다.

한국 곡들도 무대에 오른다. '꽃날', '태극기 휘

날리며, '오징어 게임' 등이 바로 그것. 이어 재즈 풍으로 연주하는 '남행열차'와 '목포의 눈물'도 레퍼토리에 있다. 성탄제 분위기를 미리 만끽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 '징글벨 락', 'I'll be Bach for Christmas'도 연주할 예정이다.

지휘는 아시아 아트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라현수가 맡는다. 이종만, 허현해, 최유민, 오윤경 등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첼로에 김고운 등, 베이스에 정용훈 연주자 등이 출연한다.

피들스트링 관계자는 "그동안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당신을 위한 세레나데', '아마데우스 인 씨네마' 등 다양한 기획 음악회를 선보여 왔다"며 "성탄제를 앞두고 크리스마스-바흐의 곡을 들으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금호아트홀 문의.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해금합주단 이현이 지난 4회 정기연주회 '꿈의 날개로 비상하다'에서 연주하는 모습. <이현 제공>

해금합주단 '이현' 꿈을 펼치자

12월 2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단 두 개의 줄로 우리 고유의 정아함을 담아내는 '해금' 연주회가 펼쳐진다.

해금합주단 '이현(二絃·대표 김해숙)'이 제5회 정기연주회 '이현! 다시 시작. 품속에 꿈을 펼치자!'를 12월 2일 오후 3시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연다.

합주단 이현은 2018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광주 동구 주민을 중심으로 창단, '해금'을 매개로 동행할 꿈꾸는 30여 명 연주자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다. 창단 이래 광주 푸른길공원, 광주읍성, 동구 인문대학, 충장축제 등에서 연주회를 선보여 왔다.

먼저 '수연장지곡'이 막을 연다. 고려 시기 당에서 들어온 음악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며 향악화돼 국태민안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아정한 곡이다. 이준호가 1989년 작곡한 해금독주곡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설산의 이미지를 해금과 신디사이저를 중심으로 묘사한다.

삶과 죽음을 악곡에 녹여낸 '꽃의 동화. 가시버시사랑'도 들을 수 있다. 영화 '축제'의 삽입곡으로, '가시버시'란 부부를 뜻하는 옛 우리말이다. 혼례 축하곡 등으로 자주 활용되는데 화목한 가정을 바라는 작품이다. 피아노 연주에 김숙희, 장고에 김동현.

이외 김영재, 고영란이 편곡한 '아리랑 모음곡', 경북 지방의 노동요를 해금 2중주로 편곡한 '상주합창을 주제로 한 해금이중주'도 들을 수 있다. 전남대 성진기 명예교수는 '해금의 소리 영혼의 노래'라는 주제로 인문학 토크의 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금합주단 이현 고영란 총감독은 "이번 연주회는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해 함께 관람하도록 했다"며 "문화예술이 누구나 함께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금연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온갖 풍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나'

이창희 개인전, 12월 4일까지 이화갤러리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

이창희 화가의 작품 속 인물은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전체적인 윤곽만 있는 인물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다. 각각의 인물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든 모습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마치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이창희 작가의 개인전이 이화갤러리(동구 예술길 19-2)에서 오는 12월 4일까지 열린다.

주제부터 친숙한 나무를 차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나무와 나'라는 주제에는 지나온 삶의 흔적과 편린들이 담겨 있다. 작가는 나무에 자신의 모습

을 투영해 온갖 풍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초점화한 것 같다.

모두 20여 편의 작품들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발길을 멈추게 하는 묘한 끌림이 있다. 그 질문은 작가 스스로에게 하는 물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작품을 보는 모든 관객들을 향해 던지는 반문이기도 하다.

이밖에 전시장에서는 '나무이야기'를 비롯해 '외줄타기', '석양에 눈물나다' 등과 같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작가는 "넉넉한 품을 지닌 나무의 건장한 생명력을 닮고 싶었다. 지난해 가지치기한 나무들이 그 갈려 나간 곳에서 새순을 피워내는 탄생과 소멸의 자연순환, 그 나무들을 나의 색으로 표현했다"며 "조금은 더 단단해질 나를 기대하며 세상 밖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II'

으로 나갈 늦은 용기를 내어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작가는 서울여대를 졸업했으며 2023광주시미술대전 등에 입선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Since 1982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